



Glovision

MISSION CENTER

2019년 세 번째 기도편지



PARKING
AREA

글로비전 국제학교

학교 인가 신청
타 학교 견학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사 진행중

식당 & 카페
카페 완공

다니엘학사
후원에 감사
아이들 훈육
즐거운 외출

글로비전 국제유치원

한국어반 개원과
하나님의 뜻

비전하우스

호산나 방과후 학교
토요 영어학교 준비
아이들의 성장

방라뭉 새빛교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연합예배, 교회 후원자
모색 중, 찬양팀 발전, 주일학교 소그룹리더,
세계로교회 중등부 단기팀

ENTER



New Light Church of Banglamung



방라몽 새빛교회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로벌전미선센터 내에 개척된 방라몽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재적 성도 수백명에 세례 받은 성도가 백여명이 되기까지 복음의 불모지인 방라몽 지역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우뚝 서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 폭력과 이혼, 그 결과 버려진 아이들로 소망이 끊어져 보이던 이 땅에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심 또한 더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매주 다 참석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정사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배에 빠지기가 부지기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방라몽 새빛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며 천국 소망 잃지않고 살아가도록 새벽마다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지 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방라몽 새빛교회의 협동 목사인 쏜톤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와 방라몽새빛교회가 모여 한 달에 한 번 연합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쏜톤 목사의 교회 성도들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방라몽 새빛교회에서는 후식을 준비해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연합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쏜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끝이 납니다. 현지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많은 위로와 기쁨, 그리고 정을 나누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라몽 새빛교회의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쏜톤 목사님과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척박한 태국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더 많은 태국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라몽 새빛교회가 새로운 후원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라몽 새빛교회를 후원해주시던 양산 새빛교회가 여러가지 문제로 후원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난 6월부터 방라몽 새빛교회 운영금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방라몽 새빛교회는 재정적 문제로 큰 어려움 속에 있어 새로운 후원교회를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방라몽 새빛교회에 출석하는 현지인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현금에만 의존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국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때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을 기쁨으로 꿈꾸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교회 운영에 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때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방라몽 새빛교회의 건축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양산 새빛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교회 건축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세계로교회와 송천교회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방라몽 새빛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방라몽 새빛교회 찬양팀의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사 아이들로 구성된 방라몽 새빛교회의 찬양팀의 실력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학사 아이들은 하교 후에 매일 모여서 앳 전도사의 주도로 하루 1시간씩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앳 전도사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악기를 선택하도록 해서 연습을 시키니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악기를 바꿔가며 연습을 하니, 진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앳 전도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들을 다 가르쳐주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아이들이 서툴지만 여러 악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더욱 완성도 높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을 연주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오.



주일학교에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일학교에 4개의 소그룹과 4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리더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는 '캐'(만16세), 캄보디아 국적으로 태국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에스터'(만15세), 선교사로 헌신한 어머니를 따라와 태국에서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최준행'(만13세),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으나 주일학교에 꾸준히 출석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야마'(만12세)입니다. 이들에게 "리더로 세운다"는 얘기를 했을 때, 떨리는 목소리와 상기된 표정으로 수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오전 예배와 공과시간에 능숙하게 자신들의 조원들을 돌보며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해 집니다. 덕분에 주일학교가 더욱 안정되어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로교회 중등부 단기팀이 은혜로운 단기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8월 6일(화)부터 15일(목)까지 세계로교회 중등부 단기팀이 글로비전미션센터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주변 학교를 방문하여 준비해 온 공연을 선보이고 선물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하는 학교마다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함께했지만, 중등부팀은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순서를 마쳤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한 흔적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태국 아이들을 초청하여 성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주일에는 중등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진상욱 목사가 영어로 설교를 하며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공과시간에는 김지연 선교사의 진행으로 복음 공놀이 게임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한인예배에서는 정천훈 목사가 설교와 간증을 하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워크듀티를 하며 국제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공사자재를 옮겼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중등부 학생들이 대견했습니다. 중등부팀의 수고와 헌신으로 새롭게 주일학교에 출석한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Daniel House



학사 아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학사를 건축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수산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최정철 목사님과 양산 새빛교회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후반기는 많은 분들께서 학사 아이들에게 음식, 옷 등으로 크고 작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후원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9월 20일 저녁, 싱가포르 교회에 출석하는 두 명의 젊은 성도가 교회 대표로 다니엘 학사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간식, 생필품들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번 후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감사하고 뜻 깊었습니다. 두 성도는 태국을 여행하는 김에 태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자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뜻을 모아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낼 곳을 찾아 달라며 태국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태국인 친구는 글로벌미션센터와 인연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락이 닿았고,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두 싱가포르 성도와 함께 다니엘 학사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글로벌미션센터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보이셨습니다. 사역으로 지친 사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학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훈육하고 키워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매일 같이 느낍니다. 지난 10월에는 다섯 명의 남자 아이들이 몰래 단체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사 남자 아이의 심부름을 받고 옆 집에 사는 친구가 사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있던 고아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선생님들의 골머리를 썩혔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니라 이 중 3명의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과 여성 일꾼이 목욕하는 것을 훑쳐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받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선물 받은 물건이나 센터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파손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한 여자 아이는 학교에서 같은 반 동성 친구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도로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이미 2년 전부터 동성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고자 혼도 내고 말씀으로 타이르기도 하며 훈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씩이나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주십시오.



학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쌓아 주기 위해 종종 외출을 나갑니다.

외출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공휴일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센터 근처 수영장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Sheep Farm 동물원에서 귀여운 동물 쇼도 보며 사진을 찍는 행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쌀국수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생일에는 주인공을 위한 과자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에는 다같이 모여서 윷놀이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라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이자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Hosanna School



호산나 토요 영어학교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글로벌비전미션센터 주변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영어수업을 통해 교회를 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토요 영어학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는 국제학교 교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수준 있는 영어 교육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연령의 제한 없이 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반석 선교사가 고학년 아이들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고 이기쁨 선교사가 저학년 아이들을 맡아 총 45명의 아이들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와 주변 학교들에 홍보한 결과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호산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을 만들고 교실을 정리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센터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Vol.1



GLOVISION

Saturday English Program

Saturday English Program! โปรแกรมภาษาอังกฤษวันเสาร์!

We provide fun and exciting English classes on SATURDAYS for students aged 7~18. By using individualized learning system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according their level and pace of learning. เรามีชั้นเรีย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ที่สนุกสนานและน่าตื่นเต้นในวันเสาร์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อายุ 7 - 18 ปี เมื่อใช้ระบบการเรียนรู้แบบเฉพาะบุคคลนักเรียนจะ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รู้ภาษาอังกฤษตามระดับและ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พวกเขา

Class Hours Saturdays(วันเสาร์) 9:00~12:00 Starting on Dec 7th, 2019 #Snacks and drinks are provided มีบริการอาหารว่างและเครื่องดื่ม What Do We Learn? English songs, Phonics การร้องเพลง, 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 Speaking & Listening การพูดและการฟัง Reading & Writing การอ่านและการเขียน #Textbooks are from U.S.A หนังสือเรียนมาจาก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Learning Fee 800 THB per month (800บาทต่อเดือน) #There is no refund in the middle of the month ไม่มีการคืนเงินแม้ว่าจะออกกลางของเดือน #Payment must be made on 1st ~ 5th of every month. ต้องชำระเงินภายในวันที่ 1-5 ของทุกเดือน	   
--	---

อายุนักเรียน: 7~18 จำนวนนักเรียน: 45
วันเปิดเรียน: 7ธันวาคม/2562
วันที่ครบกำหนดลงทะเบียน: 30พฤศจิกายน/2562

English : 095-950-1674 (Lynn)
Thai : 065-469-5245 (กัญญา)

19/1 Moo5 Nongtalai Banglamung Chonburi 20150
(Google map : Glovision Mission Center)



호산나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산나 방과후 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거제 호산나 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 한국어, 악기, 영어 수업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역자들이나 손님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사람 (이름)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김지연 선교사가 아이들과 한국어로 기도할 때면 ‘아멘, 아멘’ 하며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에 집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호산나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본인이 더 잘하고 있다며 공부가 즐거워졌다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주일 성도들 중 어떤 학부모는 자기 자녀도 호산나 아이들처럼 악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이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이 자라면서 생각과 꿈도 자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lovisio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글로벌비전 국제학교 시작을 위한 인가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비전미션센터에서 국제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태국 교육부의 국제학교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현재는 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고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염려되고 긴장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 사역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인가 없이도 학교를 시작할 순 있으나, 학교 인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태국 아이들을 학생으로 받을 수 있고 외국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글로벌비전미션센터의 교육선교 사역의 시작이 학교 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사역자들은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학교 인가를 받고 하나님의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글로벌비전 국제학교 준비를 위해 타 학교 견학을 했습니다.

학교 시작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방콕 School of Tomorrow Asia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Faith Learning Christian Academy(FLCA)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책임지고 계시는 Ray목사는 필리핀 선교사로서 필리핀과 태국 아이들을 위한 SOT학교를 운영하시며 SOT 아시아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Ray 목사는 글로벌비전국제학교가 파타야의 유일한 SOT 학교로 세워질 것에 기뻐해주면서 학교 운영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ACE curriculum을 사용하는 방법, SOT 학교만의 교실 활용방법, ESL아이들 교육방법, 대학진학, 교사교육, 학부모상담 등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Ray 목사님과 나눈 많은 이야기 중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작게 학교를 시작하여 키워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없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며 학교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도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역자들은 또 다른 SOT 학교인 Manor International School(MIS)을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MIS는 태국의 SOT학교 중 유일하게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이어서 국제학교 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글로벌비전미션센터에 주신 사명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공사 중 일어난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글로벌비전 국제학교 건물을 짓던 중 2층 외벽에 붙어있던 돌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인부의 머리에 부딪히며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즉시 주변사람들이 피범벅이 된 캄보디아 여성 인부를 다급하게 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병원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돌로 인해 두상 한가운데 깊게 찢어진 부분을 소독하여 봉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건축을 해온 베테랑 인부들조차 왜 돌이 떨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모두가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순간 낙심되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힘써 기도했습니다. 또한 인부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캄보디아 여성 인부는 깨끗이 치료되어 회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공사과 공사과정 중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로벌전 국제학교 공사가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전국제학교가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 과정이 항상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건물은 외벽에 돌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큰 운동장에는 나무를 심어 꾸몄고 구역을 나누어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정원과 야외 무대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건물 옆 공터를 정리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황무지였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하는 손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로벌전 국제유치원의 한국어 반의 개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전 국제유치원의 한국어반이 임마누엘 국제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월 26일에 개원했습니다. 임마누엘 국제선교원을 먼저 개원하게 된 이유는 파타야에 500명(한인회 등록 인원수)~5,000명(추정치)의 재외국민이 있으나 아직 한인 유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인 유치원을 선교원 형식으로 열어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임마누엘 국제선교원 개원을 앞두고 사역자들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역자들 모두 매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선교원 개원과 운영을 위한 여러 주제를 두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재를 주문하고 사무실과 교실의 교구를 정리 정돈 했습니다. 선교원 원감인 김지연 선교사는 더욱 열심을 내어 선교원 내부 곳곳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며 선교원 아이들과 학부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규식 선교사는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글로벌전미션센터 입구 길을 다듬고 선교원 주변 철조망 페인트작업, 미니 동물원 정리, 간판설치 등 센터의 곳곳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반석 선교사는 선교원 행정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와 블로그 제작 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글로벌전미션센터의 사역자들은 임마누엘 국제선교원 홍보를 위해 파타야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한인 자녀들이 모이는 토요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하고, 또 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태국맘 카페 및 블로그에 홍보 글을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임마누엘 선교원에 대한 몇 건의 문의전화만 있을 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역자들은 홍보방식과 홍보대상도 바꾸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변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파타야에 사는 한인들이 자녀에게 한국어보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인 유치원 사역을 막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전미션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간추린 소식

1. 학부모 상담 장소 및 회의 장소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엘림카페’가 완공되었습니다.



PRAYER REQUEST

1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국제유치원 준비와 개원, 그리고 글로벌미션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준비해주시고 열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글로벌국제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태국 방라몽 땅에 희망이 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벌국제학교와 유치원 개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학교 인가도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태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은 한국이 독립이후 빠르게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발전 한 것을 모델삼아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이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누구도 ‘교육’을 통해 한국이 성장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우리가 설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 확신합니다. 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 이규식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이규식 선교사는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으로 인해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 급하게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응급으로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하여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한국에서 약 3개월간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니며 몸을 돌보았습니다. 현재는 잘 회복되어 음식조절과 약의 도움으로 몸을 다스리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국제학교 공사와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국제학교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물 공사와 그 앞 운동장에 나무를 심고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을 두고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건물 공사가 위험한 공사인 만큼 인부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동참해 주십시오.

글로벌전선교회 : 이규식(태국지부 이사장), 유철준(한국지부 이사장)
글로벌전국제유치원 : 최영미(원장), 김지연(한국어반 원감), 이기쁨(영어반 원감)
호산나방과후학교&다니엘학사 : 최정철(교장)
방라몽새빛교회 : 이규식(담임목사), 순튼(현지인 협동목사), 이반석(주일학교)